여성학연구, 제35권 제1호(2025.4.), pp.7~39 [DOI] http://doi.org/10.22772/pnujws.35.1.202504.7

한국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 2000년대 일본 거주 미등록 제주여성의 구술 분석을 중심으로

이혜진*

| 목차 |

1. 서론
2. 분석시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시각
   2) 연구방법
3. 제주여성의 이주 계기와 과정
   1) 이주 결정의 계기
   2) 이주의 반복성
   3) 이주의 파트너
4. 제주여성의 일본에서의 삶
   1) 노동 경험
   2) 삶터로서의 일본
5. 결론

| 초록 |

이 연구는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던 제주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한다. '이주 아비투스'란 특정 지역에서 이주와 이동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는 남편의 사업 실패, 빚 보증 등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20세기 초부터 이어진 제주도민의 일본으로의 이주는 재일제주인 네트워크와 관광 비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합법적인 경로가 어려운 경우, 밀항이나 관광 비자를 이용한 노동이주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며, 여성들은 식당, 호텔 청소, 파친코 환전소 등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했다. 제주여성들은 일본 내 가족, 친척, 친구 등의 동향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과 정착이 용이할 수 있었다. 귀국은 자발적 귀국(자수) 또는 강제송환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귀국 후 한국 사회에서의 재적응이

* 경남연구원 portsait@gmail.com

쉽지 않기도 했고, 다시 일본으로 이주하려는 열망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제주 여성들의 노동이주가 젠더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경제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 제주여성, 이주 아비투스, 동향 네트워크, 경제적 위기, 젠더화된 노동이주, 라이프 스토리

1. 서론

현재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이민을 적극 수용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나라였다. 6 · 25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한 한국정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족계획을 시행했고, 당시 한국에는 해외로 이민(emigrant)을 떠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정기선, 2016: 257). 더욱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노동을 떠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발급이 쉽지 않았던 여권을 용이하게 만들고 일본정부로부터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 대부분은 '관광 비자'의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로 생활하며 노동하고 있었다(이혜진, 2014: 2). 특히 일본으로의 이주의 흐름은 제주도에서 더욱 독특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해외 노동이주,[1]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 이

1) 노동이주(labor migration)란 한 나라의 국민이 취업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뜻한다(이규용, 2016: 2016).

주노동을 떠났던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여성들의 이주경험에 대해 구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노동의 역사의 한 대목을 분석함으로써 젠더화된 이주의 방식과, 그들의 이주를 구동하는 역학 및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 개념을 확장하여, 제주도민에게 축적된 반복적 이동 경향을 '이주 아비투스'로 읽어보고자 한다. 이는 일본으로의 이주를 자연스럽고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제주여성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기능할 수 있다.

일본으로의 노동이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도민들은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이전부터 일본에서 이주노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922년에 '군대환(君が代丸)'이 오사카와 제주도를 연결하게 되면서부터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가 더욱 쉬워졌다. 1934년에는 일본으로의 이주자와 제주도로의 귀환자를 합한 수가 약 5만 명을 기록하여 제주도 인구의 25%에 달하게 된다. 제주도민들의 빈번한 일본 이주에 따라 제주도의 농업경제는 파괴되고 점차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되었다. 일본을 오가던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생산가능인구였기 때문에 일본 이주로 인한 제주도내의 노동력 부족 상황은 심각해졌지만 일본에서 제주도로 보내오는 송금 덕분에 제주도 전체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枡田, 1976: 111-115). 당시 제주도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일본으로의 노동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상황과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玄武岩, 2007: 165).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던 '바다를 걸친 생활권'(梶村, 1985)은 일본 패전 이후 설정된 국경선으로 인해 왕래가 제한되었지만 이미 구축된 '수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되어 '국경을 걸친 생활권'으로 전환되었다. 해방 후에 제주도로 6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귀환했으나 한반도의 식량난, 콜레라 창궐 등 사회적 혼란을 비롯하여 정치적 불안이 격렬해지자 그 이듬

해부터 다시 일본으로의 이주가 활발해졌는데(玄武岩, 2007: 165) 이주 방식은 주로 밀항이었다.[2] 이런 와중에 1948년에는 제주 4·3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으로의 이주에 박차가 가해졌다. 예를 들면, 1948년 6월과 8월 사이에 에히메현(愛媛縣)으로 밀항한 조선인 290명 중 281명이 제주도 출신자였다고 한다.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일본으로 정식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입국 수속이 번잡하였기에 밀항이 지속되었다. 1970년에서 1974년까지의 한국인 '불법입국자'는 74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에 제주도 출신자가 608명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했으며, 1980년대에도 여전히 밀항자들의 대부분은 제주도 출신자로 밝혀졌다. 『아사히신문』 기사에 따르면, 1984년의 일본으로의 밀입국자는 412명, 대부분이 한국 출신이고, 나가사키에 있는 오무라(大村)수용소에는 여성 19명을 포함한 75명이 송환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 중 95%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보도했다(양인실, 2013: 84-85).

재일제주인 1세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했으며, "재일제주인 덕분에 제주도가 발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일제주인은 제주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이혜진, 2014: 224). 재일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진 고향에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도일 후 자신의 성공한 삶을 전하기 위해서 현금과 현물 등 '고향 기부'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김치완, 2024: 205).[3] 재일제주인 1세들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농촌개혁사업, 촌락발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부와 지원을 했다(이혜진, 2014: 224). 제주도에 사는 사람 중에 재일제주인의 기부나 기증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2)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지령에 따라 조선인 귀환자의 일본으로의 재이주가 엄격히 규제되었지만, '기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다(양인실, 2013: 이혜진, 2014: 12).

3) 재일제주인의 '고향 기부'와 투자는 제주도정의 요청이기도 했다(이혜진, 2014: 12).

나 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재일제주인의 기부나 기증으로 수혜를 받은 제주도민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생활개선과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제주도 전체로는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초기자본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김희철 · 진관훈, 2007: 108).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사회가 재일제주인의 지원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도하였다. 당시 제주도민에게 재일제주인은 '유복한 나라에서 온 손님'같은 인식이 있었고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밀항'으로 일본으로 간 사람들까지도 마을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조성윤, 2005: 93). "걔는 정말 촌에서 클 땐 아무것도 아니었지. 지금은 동창생들 앞에서도 쩡쩡하지. 그러니까 돈이 큰 거야"라는 실감, 그리고 "밀항으로 일본에 가서 번 돈으로 5년 후에 고향에서 두 번째로 큰 밭을 샀다"는 자신의 가까이에서 목격되는 성공사례는 제주도민들의 일본 이주에 대한 열망을 높여갔다(이혜진, 2014: 224). 게다가 제주도민 대부분은 일본에 동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일제주인들은 물품이 부족한 제주도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식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약품 등 "보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보내왔다. 재일제주인의 행위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제주사회의 가시적 변화 속에 성장한 제주도민들은 일본을 생활세계의 일부로 여기게 된다. 제주도민들의 사고방식 속에 일본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민 송출 커뮤니티에서 커온 아이들은 친척과 이웃들의 생활양식을 통해 해외 노동이 주로 체득된 행동양식을 몸에 익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佐久間, 1998: 161-162).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는 일본이 '동경의 장소'이자 '가능성의 장소'로 체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는 제주도가 경제적 발전을 이뤄가고 있었고, 재일제주인에 대한 물질적 원조 요구도 감소하였기에 재일제주인의 '특별한' 이미지도 점차 약해졌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재일제주인들의 기부와 기증은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4)]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1982년 7월부터 친척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1985년 이후에는 '친척방문비자'의 발급으로 합법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989년에는 '해외여행 완전자유화'에 의해 해외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변화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한층 손쉽게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어졌다. 재일제주인과의 돈독한 관계는 예전 같지 않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역사성을 담지한 멘탈리티'는 일본을 자신과 '상당히' 친밀한 장소로 상상하게 했고(이혜진, 2014: 225-226), 그 상상력, 제주도민의 집합기억에 따른 상상력이 노동이주라는 행위의 발판이 되어 소득 증가와 현실 도피 등 일본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대를 열망하는 관념들을 생성해내고 있었다(Appadurai, 1996). 이렇듯 일제강점기부터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적 ·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제주도민들은 이주와 송금을 통해 고향 경제를 지탱해왔다. 이 과정은 제주사회 전반에 일본을 '생활세계'의 일부로 상상하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연구자가 인터뷰한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에도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2. 분석시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시각

이 연구의 주요대상으로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경험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제주여성들은 지리적으로도 젠더적으로도 주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었지만, 이주노동을 감행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의 삶을 벗어나 집

4) 제주도와의 강렬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재일제주인 1세의 수적 감소와 맞물려 제주사회에서는 재일제주인을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 여기며 재일제주인의 기부와 기증에 대해 무성의한 대처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재일제주인들은 제주사회에 대한 기부나 기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김희철 · 진관훈, 2007: 102).

안의 생계부양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가족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주한 곳에서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 및 미래 기획까지 꿈꾸고 있었다.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 연쇄이주를 유발하는 통로가 되고(Mattingly, 2001),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 이주여성의 네트워크와 가족관계는 이주여성의 선택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이주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정현주, 2008: 900). '이주의 여성화'는 국제 이주자의 여성 강세 현상으로도 지적되는데, 일본으로의 미등록 체류 한국인 여성들에게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 이주노동의 '여성화'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며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 영역이 급속히 상품화되는 현실과 연결되어 진행되었다(김현미, 2006: 15). 여성들의 국제 이주는 여성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 체제, 이주 제도, 개별 이주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Kofman. et. al, 2000; 김현미, 2006: 16 재인용). 오이시는 출신국가의 이주노동 정책이 여성 이주노동의 양상에 큰 차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으나(Oishi, 2005),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의 일본 이주는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와 일본의 '관광 비자' 발급 확대가 맞물려 일본 입국의 기회가 창출된 것이다. 이는 송출국-유입국/출신국-목적국 쌍방의 출입국 정책 및 비자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한일 간의 관광제도로 인해 한층 용이하게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된 여성들은 일본에서 정착하여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이주 공간에서 숙소와 취업을 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만난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노동이주를 경험한 제주여성들은 일본을 생활권의 일부로 상정하고 살아온 여성들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연스레 일본이라는 공간, 혹은 기회, 선택이 자리잡고(positioned) 있었다. 그들에게 발견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이주 아비투스'

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아비투스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 체화된 성향으로, 이는 개인의 무의식적 행동과 판단을 이끈다. 이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영속적이면서 동시에 변화 가능한(dispositions durables et transposables) 성향들의 체계로서, 객관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979/2005: 12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지역사회에서 이주가 반복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현상 또한 하나의 아비투스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이주 아비투스'로 개념화하여, 제주도민들이 일본 이주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성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이동 실천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민들이 일본을 '가능성의 장소'로 상정하며 이주를 반복하는 경향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집합기억과 경험을 통해 체득된 이동성에 대해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수용적 태도를 나타낸다. 제주여성들의 이주 결정은 구조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강력히 작용했기에, 이들의 이주 실천을 무의식적이거나 자동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주 아비투스'는 이주 행위의 경향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장'에서 여러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본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을 한다. 부르디외는 이 투쟁을 일종의 게임으로 보았고, 성공적인 투쟁을 위해서 각 행위자들은 장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rules of the game)을 습득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전략(strategy)을 구사하게 된다(1979/2005: 174). 이때, 행위자들이 구사하는 전략의 성격은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와 그들의 삶의 궤적, 그리고 아비투스에 따라 달라진다(이상길, 2001: 17; 이성회, 2013: 155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는 아비투스를 행동 양식의 경향성으로 이해하고,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이라는 노동시장에서 제주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미등록 체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노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실천은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구조적 제약과 장의 규칙 속에서 작동한, 그들 고유의 이주 아비투스가 가능하게 한 결과였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를 통해, 제주여성들의 이주 실천이 어떻게 구조적 조건과 내면화된 성향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Massey et al.(1987)은 멕시코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 이주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부에서 이주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규범과 미래 경로로 자연화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이주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이라기보다, 공동체 차원의 문화적 기대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혀냈다(Massey et al., 1993: 453).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일본 이주를 개인적 차원을 초월한 사회적 · 문화적 실천으로 분석하며, 이를 '이주 아비투스'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2) 연구방법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삶 ·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결혼이주가 아닌 방식의 여성 이주에 대한 연구나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해외의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가 대부분 노동이주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보이지만(정현주, 2008: 897), 이 논문은 한국 여성들의 노동이주, 더욱이 미등록 체류 상태로 해외에서 노동했던 한국 여성들의 이주과정과 경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 여성의 이주의 역사를 내러티브/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해석하여, 한국인의 해외 노동이주에 대한 궤적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주의 결정이나 실행에는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여성의 해외 노동이주를 허용하는지와 밀접히 관련 되지만(김민정, 2011),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는 제주도의 역사적 상황이 만들어 낸 '국경을 넘는 관계성'이 비가시적인 통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는 관계성'이 만들어낸 제주여성들의 노동이주에 대해 연구자는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라이프 스토리는 생애사(Life History) 방법론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라이프 스토리는 개인의 삶에 대해 구술된 이야기를 말하며,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그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술로부터 자신의 생활세계와 사회문화의 양상과 변동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질적조사방법의 일종이다(櫻井, 2012: 6). 인터뷰는 청자와 화자와의 언어적 상호행위에 의해 라이프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현실이 구성된다. 바로 이것이 생애사와 구분되는 지점으로 생애사는 대상자의 현실에 중점을 두고 묘사하여 연구자를 불가시적인 '전지적' 위치에 두지만, 라이프 스토리는 연구자의 존재를 화자와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 스토리는 화자와 청자 양쪽의 관심에 따라 구성되는 '대화적 혼합체'이므로, 인터뷰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기'의 화자와 청자 양쪽 모두가 함께 생성해내는 문화적 영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櫻井, 2002). 사회변동은 여성의 라이프 스토리가 지배문화나 공동체/가족에 유통되고 있는 전형적 이야기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가늠해내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사회에 유통되는 스토리에 대해 동조, 타협, 갈등, 반항, 거부 등의 대응관계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요구받는다. 왜냐 하면, 남성의 젠더 카테고리의 다수는 지금껏 기본적으로 무징화(無徵化)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납득되었으나 여성은 유징화(有徵化)된 존재로서 여성의 사회적 표상, 즉 젠더 카테고리와의 관계로 자신을 위치 짓도록 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주류 서사나 전형적 이야기를 의식하면서, 이와

타협하면서 갈등하고, 때로는 맞설 수 밖에 없었다. 여성들의 스토리에는 항상 사회의 젠더 카테고리와의 역동성이 반영되어 있다(櫻井, 2003: 14).

연구자는 2005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가나가와 시티유니온(神奈川シティユニオン)이라는 커뮤니티유니온[5]에서 필드워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소개받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한국인노동자와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미등록 이주노동 경험자를 찾아다니며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소개로 인터뷰가 이어지는 '눈덩이 표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09년에 실시되었던 제주여성 9명에 대한 인터뷰 녹취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녹취자료는 인터뷰 참여자들이 구술한 내용과 어투(사투리)를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발화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는 구술 속에 그들의 지역성과 체화된 '이동'의 흔적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혜진, 2023: 47). 인터뷰에 참여한 9명의 제주여성의 간단한 내역은 〈표 1〉과 같다. 참여자들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서 2~3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인터뷰는 1차례 진행했으나, 경우에 따라 2차례(D씨, E씨, H씨)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일본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알게 된 여성들(B씨, D씨, H씨)도 있었고, 소개받아 한국에서 처음 만나게 된 여성들(A씨, C씨, E씨, F씨, G씨, I씨)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녹취한 후 익명처리하였고, 연구 참여 전에 충분히 본 연구의 취지와 용도를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또한 생산된 구술자료는 연구자의 암호화된 장비에 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였음을 밝혀둔다.

5) 커뮤니티유니온은 지역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의 임의가입을 통해 구성되며, 노동자들의 개별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전반에 일본에 등장한 노동조합의 한 형태이다. 일본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뤄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전제로 두고 있지만, 커뮤니티유니온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관리직 노동자 등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이혜진, 2013: 293).

〈표 1〉 인터뷰 참여자

표기	출생연도	학력	고향	거주지	가족상황	인터뷰 일시
A	1937년생	초졸	구좌읍	전북	남편 사별, 자녀 1남3녀	2009.08.20.
B	1939년생	고졸	구좌읍	제주	남편 별거, 자녀 2남1녀	2009.08.07.
C	1953년생	미상	한림읍	제주	남편 이혼, 자녀 1남	2009.12.28.
D	1959년생	중졸	애월읍	제주	남편, 자녀 1남1녀	2009.07.27., 08.11.
E	1960년생	고졸	한림읍	서울	남편, 자녀 1남	2009.08.18., 12.21.
F	1961년생	고졸	한경면	제주	남편, 자녀 1남2녀	2009.08.09.
G	1965년생	고졸	한림읍	제주	남편, 자녀 1남1녀	2009.08.10.
H	1965년생	고졸	한림읍	제주	재혼 남편, 자녀 2남2녀	2009.08.10., 12.29.
I	1966년생	전문대	한림읍	제주	남편 이혼, 자녀 2남	2009.12.29

3. 제주여성의 이주 계기와 과정

1) 이주 결정의 계기

여성들의 이주에서 가족의 결정은 남성들의 이주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던 가사노동, 자녀양육, 친척관계 관리 등의 역할을 다른 가족이나 친족과 재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며, 이주를 감행한 여성들의 '초국적 원거리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 역할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Piper & Roces, 2003; 김민정, 2012: 38). 더욱이 기혼여성의 경우, 이주에 대한 결정은 배우자의 근로 상황, 채무관계 등의 경제적 여건이 남성들의 이주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이주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남편이 만든 빚을 갚기 위해 도일한 사례는 A씨, C씨, D씨, F씨, G씨, I씨로 인터뷰 참여자의 2/3에게서 발견된다.

우리 아저씨는 12월 초에 부도나면서, 11월 말일까지 우리 사위 돈도 다 끌어갔어. 우리 서울 사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머니, 12월 초에 부도나면서, 11월 말에 나 돈을 가져가지 말카랍두게[말지 그랬어요].” 그 오죽한 소리야. 그 맞는 말이야. 우리 고모 당근 캔 돈 오백도 나가 가져갔어. … 아저씨 돌아가시고 일본으로 갔어. 빚 때문에. 왜냐하면 빚도 빚인데, …차압이 들어가게 되었어. 이것 때문이야. 애, 아들도 통장도 못 만들어. 우선은 요걸 벗겨 줘야지. (일본) 가서 그거 벗겼어. 나는 이제도 껄끄러. 내 빚이 아니고, 우리 아저씨 보증. (A씨)

여기서(제주시) 우리가 사업을 좀 크게 했었어. … 아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 아이구 돈은 뭐, (일본에서) 돈은 많이 벌었지. 많이 벌었다고 해야지. 한 달에 몇 십만 엔씩은 꼬박꼬박 저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빚 물고, 내가 여기(제주도)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해지지. 아니면 장사 못해. 빚쟁이들 가만 나둬? (C씨)

남편이 요리기술이 있었기에 … 중화요리, 정식으로 그 동네에 유명하게 되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장사가 잘되었는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게 되어, 이로 인해 집이 차압당하고, 망했어요. 남편은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고, 곱창병이 걸려, 겨우 그것을 낫게 한 후에 나는 1996년 2월에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D씨)

우린 좀 빚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지. 모으는 대로 다 갚아버려서, 올 땐 돈이 없었어요. 일 좀 하다가 빌려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보내서 갚았으니까, 올 때는 차비만 하고 왔어요. 빚은 다 갚았어요. (F씨)

일본에서 벌어 온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 보증을 잘못 섰지 … 솔직히 보증이지. 다 보증이라. 요즘은 … 제주도는 보증 … 여기서 망해서 일본 간 사람들은 다 보증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일본 간 거…. (G씨)

직장생활 해서 신랑 만나서 93년도에 결혼하고 그러다가 애기 둘 낳고, 결혼생활 중에, 조금 전남편이 돈관계로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별거하면서, 제가 99년도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I씨)

남편의 사업실패나 타인에 대한 ‘빚 보증’으로 발생된 빚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렵게 되자 제주여성들은 일본으로의 노동이주를 통해 빚 변제

를 꾀한다. 한국의 타 지역보다 지역적 공동체성이 강한 제주사회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빚'을 얻거나 '빚 보증'을 서게 되지만,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낙인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Adkins et al., 2020). "나는 이제도 껄끄러", "거기서 빚 물고, 내가 여기(제주도)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해지지. 아니면 장사 못해"라는 구술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여성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빚 변제를 위한 일본 이주를 감행하였다.

한편, 나머지 3명의 경우, 바람나서 딴살림 차린 남편 때문에 혼자 자녀 양육을 하며 생긴 빚 변제를 위해(B씨), 남편의 사망 후 본인 사업의 실패로(H씨), 그리고 일본에서 미등록 취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요청으로(E씨)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 97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지. 가정경제가, 애들 키우면서, 애들 공부시키면서, 딸만 두고, 아들 둘은 결혼 시킨 후에, 자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월급 생활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빚도 있고, 그래서, 월급 받는 것 가지고는 생활이… 경조사 보는 거랑, 집 빌려야지, 일년 집세가… 일년 사글세를 제주도는 풍습이 한 삼백만원 빌리면 금방 일년이 돌아오고… (B씨)

> 신랑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내가 29살인가.. 애기들이 6, 7살 때. 그래서 이제 나도 장사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돈을 많이 뜯기기도 하고 돈을 잊어먹기도 하고, 일하던 아가씨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빚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또 가게 하나 남한테 준 게, 돈도 못 받고 그냥 현찰을 받았으면 괜찮을 껀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97년도에 일본을 가게 된 거라. (H씨)

>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이시돌 목장에서 근무했어요. 일은 젖소목장에서 소젖 짜고 그 외 잡무하는 건데. 남편의 고향 선배가 "거기서 노동하는 것에 비하면 여기가 돈이 더 많다"고 권유해서,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6개월 뒤에 남편이 들어오라고 해서 91년 11월에 (요코하마) 고토부키쵸로 들어갔어요. (E씨)

제주 고향에서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혹은,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획득하고자 제주여성들은 한국의 육지부를 선택하기 보다는 일본을 선택하였다. 그들에게 노동이주의 최적지로 일본이 상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동이주를 가능케 하는 합법적 거주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로 일본에 머물렀다.

2) 이주의 반복성

제주여성들은 반복적 이주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합법적 이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밀항'을 선택하기도 했다. 인터뷰 참여자 중 3명(B씨, E씨, I씨)은 한 차례의 이주로 노동을 하다가 약 10년 정도의 체류 이후 자수 또는 강제송환을 계기로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나머지 6명은 2~3회 정도 이주를 '감행'하였다. 이전에 이주경험이 있었던 제주여성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을 선택했다. A씨는 67세, B씨는 59세, C씨는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노동이주를 '감행'하였다. 당시 고연령층의 경우 지금처럼 노인일자리 등과 같은 경제활동 기회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고연령층 제주여성의 경우, 예전에 이주노동을 경험하였고 일본에 동향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을 선택했다. C씨의 경우, 57세의 나이에 이주노동 중에 단속되어 강제송환되었으나, 3개월 후에 밀항으로 일본 입국을 다시 시도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자발적 귀국(자수)과, 비자발적 귀국(강제송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귀국을 한 G씨는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항상 단속에 걸릴까봐 조심하며 다녀야 되고, 일만 하면서 문화여가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여겨서인지 G씨는 먼저 귀국한 가족들을 따라 자수하여 귀국하였다. D씨의 경우는 막상 어렵게 일본으로

들어왔으나 "일자리도 없고, 결혼(일본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돈도 못 벌고, 예전 유치장 경험도 생각나서" 힘겹게 밀항으로 입국하였으나 7개월만에 자수하여 귀국했다. 그리고 B씨는 빚을 다 갚게 되어 자수해서 제주도로 돌아왔으며, E씨는 일본의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이 2000년도부터 심해지면서 자수기간에 자수하면 입국금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준다는 말을 믿고, 2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올 요량으로 자수하러 갔다.

한편, 비자발적 귀국을 한 제주여성들은 일본경찰에게 단속된 경험이 있다. C씨는 "작년에. 잡혀서. 슈퍼 가다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잡혀가지고, 4개월만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만에 또 잡혀가지고 나왔어요. 누가 고발했어요."라고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했다. H씨의 경우는 미등록 체류자로서 단속되었다기보다는 파친코장 옆에서 흡연하다가 경범죄 위반으로 잡혔으나 미등록 체류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강제송환되었다. H씨의 경우, 딸이 자전거를 훔쳐서 타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게서 "잡아넣진 않겠지만 자수해서 가라"는 말을 듣고 자수하고 온 가족이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A씨의 경우는 재일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아사쿠사에서 길가다가 단속되었고, I씨는 한국인 미등록 체류자가 많이 살고 있는 요코하마 코토부키쵸 근방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단속되어 강제송환되었다.

〈표 2〉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주 시기 및 이유

구분	이주 시기 및 이유
A씨	① 60년(24세), 밀항하여 6년간 거주: 일본 고베로 건너간 후 연락이 없던 남편을 찾으러 친정에 장녀를 맡겨둔 채 일본으로 이주 ② 2002년 5월 15일(67세) ~ 2007년 4월 귀국(강제송환), 5년간 체류: 남편 사업 도산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관광비자로 이주
B씨	관광비자로 97년(59세) 입국하여 2006년 귀국(자수)

구분	이주 시기 및 이유
C씨	① 94년(42세) 또는 95년 ~ 2008년 11월 귀국(강제송환): 자신이 보증인으로 있던 남편이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도산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어 변제를 위해서 이주 ② 2009년(57세) 2월 밀항 ~ 2009년 7월 귀국(강제송환): 일본에서 지속적인 노동 이주를 위해 이주
D씨	① 96년(38세) 2월 ~ 96년 7월 귀국(자수) ② 2001년(43세) ~ 2006년 6월 29일 귀국(강제송환): 자녀들도 다 커서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노동하기 위해 이주 ③ 2008년 12월 밀항 ~ 2009년 7월 30일 귀국(자수), 5년간 일본 입국 금지
E씨	관광비자로 91년(32세) 입국하여 2000년 귀국(자수)
F씨	① 91년(31세) ~ 92년 9월 귀국(자수): 관광비자로 고소득 확보를 위해 이주 ② 2000년 10월(남편), 2001년 2월(자신(41세)과 차녀), 2001년 8월(장녀, 장남) ~ 2007년 4월 25일 귀국(경찰의 권유로 자수): 제주시에 정착했으나, 사업에 실패로 도망치듯이 다시 일본으로 이주
G씨	① 85년(21살)에 초청비자로 이주: “일본에서 초청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본인이 만 20살이 됨)”, 일을 그만두고 일본 이주 ② 90년(26세) ~ 1년 체류: 택시를 운전하던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곤란했기 때문에, 가족 전원이 관광비자(3개월짜리)로 일본 이주 ③ 97년(33세) ~ 2009년 3월 귀국(자수): 일본에서 벌어 온 돈으로 5년간 사업했지만, 남편이 보증을 서 준 곳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주
H씨	① 89년(25세): 부친과 함께 일본에 이주노동을 간 남편을 만나러, 자녀(아기)와 함께 이주하여 8개월 반 체류 ② 90년(26세) : 10개월간 체류 ③ 99년(35세) ~ 2007년 8월 9일 귀국(단속 → 자수) :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후, 본인 사업 실패로 다시 일본으로 이주
I씨	관광비자로 99년(34세) 입국하여 2006년 귀국(강제송환)

3) 이주의 파트너

육지출신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혼자서 일본으로 이주노동을 오고 있었으나, 제주도 출신자의 경우 단신으로 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였으나, 일본에 들어와서 가족을 형성(결혼이나 자녀 출산)하거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일본으로 같이 데려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미등록 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보육이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녀 동반 이주를 선택할 수 있었다.

제주시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잘 안 되서, 또 도망가듯이 가버렸죠. 2000년인가부다. 처음에는 애들 아빠만 갔고(2000년 10월), 가서 방 빌리고(요코하마 츄카가이) 어떻게 해가지고, 위로 둘은 두고, 막내만 데려갔고(2001년 2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애들 놔두고 간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둘 다 데려왔어요(2001년 8월). 우리 어머니가 둘을 길러주고 있었는데 감당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 온가족이 다 모인 것은 2001년도 여름방학. 첨 방을 빌린 곳은 요코하마 츄카가이 거기서 일년 반 정도 살고, 나카무라쵸로 이사를 갔지. 거기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래층에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린 애가 셋이라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단독을 빌려서 나갔어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가서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살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갔죠. 가갔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 다 알아보고, 되니까 다 같이 데려간 거죠. (F씨)

난 여기서 1989년에 결혼해 갖고, 우리 딸내미 낳고 한 일년 살다가, 불법체류로, 애기 데리고 다 남편도,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체류로 하고 90년도 겨울에 간 것 같애. 일년 반 정도 살다가, 그 담 여기 와서 5년 살다가, 일본에서 벌어 온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쫄딱 망해버린 …. 보증을 잘못 섰지.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나하고만 일본 가고, 그 담에는 한 몇 년 살다가, 딸, 아들 불러서 학교 다니고,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2000년도 되기 전인가.. 횟수로는 3년 살다가, 거기서 큰 애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온 거 같다. 남편하고 애들은 들어오고, 나는 거기서 벌면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벌고, 또 삼년을 벌고 들어오고. 그래서 난 2008년 11월에 들어왔어. 12년 살다가 …. 남편은 9년. 오래도 살았지. 근데 12년 살았는 걸 몰라, 거기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G씨)

제주여성들의 돌봄의 특이성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이주를 감

행한다는 사실이었다. 초국가적 돌봄의 연결망이 가능하게 되는 기제들은 이주지에서의 공동돌봄이 가능한 가족, 친족 및 친구, 지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이주지의 교육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주지에서의 미등록 체류 경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상정될 수 있다.

한편, 특징적인 것은 이들의 이주의 배경에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일본 이주 경험이 있었다는 점이다. G씨와 B씨는 어머니가 밀항으로, F씨는 어머니가 초청비자를 얻어 일본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

> 원래 여기서 일본가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아는 사람 연락처를 전부 갖고 가잖아. 그래야 일본가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연락처를 알고 갈걸. … 그 때는 우리 딸내미 낳고 한 일년 살다가, 불법체류로, 애기 데리고 다 남편도, 관광비자로 가서 불법체류하고 …. (G씨)

>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 있었어요. 츄카가이에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쪽으로 일을 소개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 그 당시 일본에 가는 게 붐이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많이 가 있었고. 해서 한 3년만 가서 벌고 와가지고 다시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애네들 아빠를 만났어요. (F씨)

> 어머니가 일본에 50년에 가서 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25년 정도 일본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 (B씨)

그리고 H씨는 아버지가 초청비자로 자신들보다 먼저 일본으로 들어갔었고, I씨의 경우는 아버지가 밀항으로 일본에 건너가 있었다.

> 친정아버지가 보험회사 소장하다가 말아먹고 초청비자로 일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남편과 남동생을 데리고 같이 오버스테이하고 … 우리 아빠가 한 3, 4년만 고생하고 오라고 하는데 …. (H씨)

> 저의 친정아버지도 일본에 갔다가 오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나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해에 왔어. 12, 13년 정도 되지. (I씨)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본 이주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고 있었다. 제주여성들은 무사히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등 일본 이주 성공법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얻어 이주하고 있었다. 더욱이 미등록 상태로 '단속'되어 강제송환을 대기하던 출입국관리국의 수용소 안에서도 밀항의 정보는 얻을 수가 있었다.

> 나는 사람들이 말 들으니까, "한번 간 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십일만에 들어가 버려라", "관광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으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갔어. 어디 섬인가로 갔는데, 근데, 그 섬으로 간 건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또 빠꾸 당했지, 오사카에서도 빠꾸 당했지, 한 여섯 번을 빠꾸 당한거야. 한 98년도겠지. 이제 한 번씩 다녀오면, 돈이 백만원 넘게 깨지지, 공항에서 하루 자면 2만엔, 2만 5천엔씩 받더라. 침대도 있더라. 공항 아니었어, 그 사람이 지키니까 그 사람값을 줘야 된데. 내가 돈 있는 걸 아나봐. 갈 땐 한 30만엔 정도 가져가잖아. 그래서 한번 갔다오면, 150만원, 200만원까지 들더라고. (H씨)

> 그냥 …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수용소에 살다보면 (밀항 관련 정보는)다 알 수가 있어요. 뉴칸(출입국관리국) 안에서 다 이야기가 되거든 …. (C씨)

미등록 체류 경력이 있는 한국인에게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비자 발급은 거의 불가능했고, 일본에서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 역시 점차 강화되었지만, 제주여성들은 동향 네트워크, 즉 가족과 친구 등의 연줄을 통해 취업처와 거주지를 확보하며 공식적인 제도의 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이는 공식적 이주체제의 제약과 사적 연결망의 활성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주여성들이 발휘한 행위성의 단면을 나타낸다.

4. 제주여성의 일본에서의 삶

1) 노동 경험

일본으로 먼저 건너가 있던 남편을 만나러 1960년에 밀항으로 이주했던 A씨는 남편과 재결합하여 오사카에서 자녀들을 낳고 가내공업을 하다가, 동경 시부야로 옮겨가서 부부가 함께 중화요리점을 운영했으나 경찰에 '단속'되어 1966년에 귀국하게 된다. A씨의 60년대 이주노동 사례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중화요리점에서 번 돈은 남편이 경마로 전부 탕진하게되고, 제주도로 돌아온 이후 일식집, 양계장 등 사업을 꾸리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양계장 운영으로 만든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첫 이주에서 40년 후인 67살에 두 번째 노동이주를 감행하게 된다. 친구의 소개로 한국고깃집을 전전하면서 평균 20만 엔의 월급을 받아서 고향에서 진 빚을 갚아갔다.

B씨는 1997년 59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이주하여 베이비시터, 우에노에 있는 스나쿠(술집) 주방, 찻집 등을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전철역 매점에서 3년반(월급 17만 엔)을 일하고, 그 후 4년간은 파친코 환전소에서 월급 35만 엔을 받고 일했다. 역전 매점이나 파친코 환전소는 매일 일하러 나가야 했으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도 했다. 이 직업들은 B씨에게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였으며,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서 진 빚을 다 갚고 자수하여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C씨의 경우 처음부터 요코하마 고토부키쵸의 찻집에 소개를 받고 일하게 된 이래로 12년간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 "자기 집처럼 (일)하다가 왔지"라며 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안정된 생활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자신이 거주하던 간이숙박소의 청소를 대신 해주고 월세를 면제받고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향에서 진 빚을 다 갚았다.

D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조총련계 교포가 경영하는 고깃집에 취직을

하게 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강제송환을 당한 이후로도 몇 번씩 재이주를 위해 2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밀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고깃집에서도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재고용이 거절당한 후 쓰루미(鶴見)에 있는 스나쿠에서 일하다가 급여도 못 받고 자수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E씨는 먼저 고토부키쵸에 들어와서 항만노동을 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여, 고토부키쵸의 식당에 취직한 이후, 다시 러브호텔에서 10년 동안 청소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밤 8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근무하고(6시간 근무) 일주일에 하루 휴무를 하였다. 시급은 890엔으로 월급은 20만 엔을 받았다.

F씨는 91년에 관광비자를 받고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일본에서 고소득을 올리기에 위해 이주하였으나,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위해 1년 반만에 자수하여 귀국하였다.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 실패로 2000년에 다시 일본 요코하마에 정착하여 고토부키쵸 러브호텔 청소를 하다가 파친코 환전소에서 350만 엔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가 2007년에 경찰의 권유로 자수하여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G씨의 경우, 일본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던 어머니(일본남성과 결혼)에게서 초청비자를 받고 85년(21세)에 첫 이주를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초청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던 면사무소 일(준공무원급)을 그만두고 건너가서 가방공장에서 일하다가 귀국하였다. 그후 결혼하였는데,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온 가족이 관광비자로 90년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다. 이때 파친코 환전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1년간 체류하다가 다시 귀국했다. 일본에서 벌어 온 돈으로 5년간 사업을 했지만 남편이 보증을 서 준 곳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시 97년에 일본으로 입국한다. 일본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G씨는 안정적으로 바로 파친코 환전소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H씨는 G씨와 절친한 친구 사이로, H씨의 일본 거주와 취업에는 G씨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몇 번의 일본 이주 이후 99년에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 G씨의 소개로 파친코 환전소에 서 일하게 되었고, 이때 알게 된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게 되었다.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파친코 환전소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건설현장 청소, 호박 하선작업, 김치공장, 통조림공장 등을 전전하다가 다시 파친코 환전소를 소개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I씨는 G씨와 H씨의 고향 후배로, 99년도에 일본에 들어와서 2006년에 강제송환되었는데, 그는 저녁에는 고토부키쵸의 스나쿠에서 일하고, 낮에는 상품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쉴 새 없이 일을 했다고 한다. "야는 일본에서 쉬어 보지를 않안. 진짜 부지런한 애여. 다른 말은 안하고, 너무 부지런한 아이여"라며 G씨와 H씨는 입을 모았다.

이렇듯 일본에서 제주여성들은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브로커, 생활정보지 등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했다. 주로 식당, 호텔 청소, 식품공장, 파친코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했다. 식당, 호텔 청소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평균 월급이 20만 엔 정도였으나, 파친코 환전소의 경우는 미등록 체류 상태의 한국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고임금(월급 35만 엔 정도)의 안정적이며 '정규직'과 같은 일자리로 여겨졌다. 대부분 '노가다'와 같은 일용직 단순노무자로 일하던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남성들에 비해 제주여성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 남자들은 지속적으로 못 벌죠. 일이 있고 없고가 심하니까, 남자들 버는 걸로는, 식구가 다가서 생활도 안 되죠. 난 정기적인 수입이니까. 파친코는 노는 날 없어요. 365일. 처음에는 알바니까, 한 3년은 밤에만 갔으니까, 오후 4시 반 부터 밤 11시까지 했으니까, 낮엔 시간이 있었는데, 오기 전 1년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서 했으니까, 월급이 밤에만 일했을 땐 한 20만 엔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땐 35만 엔, 남편은 한 달에 10만 엔 벌 때도 있고 잘 벌 땐 40만 엔 벌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단속이 심해지면은 못 가고. (F씨)

일본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의 제주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노동 기회가 많았다는 것은 G씨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G씨는 남편(당시,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이동하고 있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노동기회에 우위에 있던 제주여성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자신이 먼저 확보한 직장을 양보함으로써 가계 경제력을 확보 ·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불법'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재전유하고 경제사회적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미애, 2021).

2) 삶터로서의 일본

일본에서의 삶이 편했던 이유로, 제주에서와 달리 일본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별로 없어서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환율 차이로 인해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으로 제주도에서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친척과 지인들에게 나갈 경조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의 장점으로 꼽기도 했다. 시댁식구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된 일본에서의 단속 이외에는 '변수 없는 삶'이 그냥 편했다고도 했다.

> 생활하기 편하지. 이것저것 생각 안하고 일만 하니까 …. 친척들도 봐야지 주위의 사람 잘사는 거 보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눈 팅겨 나오지, 여러 가지 많이 있서. 여기서는 정신이 시끄러워.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살았지만, 일본에서는 일만 하고 살았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편해서. 일하고, 올라가고, 거기서는 전부다 똑같이.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이 없잖아. 무조건 내가 있다고 해도 전부다 거기서 시작이잖아. 그런 게 마음이 편하고 아, 여기(제주) 오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 …. 여긴 갈 데가 없잖아. (C씨)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갈 땐, 7대1이었으니까. 일본돈 만 엔이면, 여기서는 7만원이잖아. 월급이 20만 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돈으로는 140만원이 되잖아. 여기 돈 80만원보다는 60만원이 더 되는 거야. 그리고 경조사도 안 나가고 남이 안보니까, 아무 거라도 남이 주는 거 빌어 입고. (B씨)

고토부키쵸에서의 생활은 괜찮은 편이었어. 친구들 넷이서 사이좋게 재밌게 지냈지. 단지 한국에 내 맘대로 못 온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나는 일본에서가 오히려 더 좋았어. 일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타임으로 끝나고, 단지 검문 당할까봐 걱정이었지. 일만 있다면 일본이 좋아. 그리고 비자만 있다면 …. (E씨)

제가 여기에 빚만 없었다면 오히려 일본생활이 나았을 거 같아요. 거기는 일한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딸도 한시간에 3500원 받고 횟집에서 일했거든요, 힘은 힘대로 들고 … 의식도 다르고 … 나 같은 사람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여기 온지 3년이 되었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밖에도 안나가고. 애들 아빠도 어디가서 술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술은 집에서만 해요. 파친코를 두석달에 한번. 너무 심심하면 … 거기 생활이 거기는 전철이 잘 되어있으니까 어디를 쉽게 쉽게 가잖아요. 여긴 차없으면 못가. (중략) 우리 아들한테는, “야, 너 대학은 일본으로 가라. 엄마 따라갈게”(라고 했어요.) 큰딸은 지진난다고 절대 안 간다고 하는데, 아들은 “글쎄”라고 하네요. 여기 첨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한국 사람들 아무래도 기본적인 매너가 없잖아요. 사람에 대한. 애들도 그것 때문에, 애(작은딸)도 그것 때문에 학교 가서 울고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엔 툭 치고 가더라도, 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사과하는 법이 없고 …. 나야 일본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작은딸)난 완전 가고 싶지” 오빠 대학갈 때 그때 같이 가서 고등학교 다니려면 일어를 까먹지 말아야지 …. 작년엔 작은딸이 친구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안 써요. (F씨)

특히, F씨의 경우는 가족 전체가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학령기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게 된 사례로, 자녀들의 진학이 계기가 되어 자신도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기대와 희망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 것이 H씨는 귀국 후의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일본에서보다 더 힘들어졌고 삶의 질도 낮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간관계 또한 협소한 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그저께도 말했지만.. 난 지금도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자식들이랑 떨어져서 살면 외롭지만, 자식들이랑 다 가서 살아도 된다면, 난 일본에 가서 살고 싶어. 일본이 더 편했던 거 같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G씨)일본에서는 둘이만 살았었고, 걸릴 게 없었잖아. 신경 쓸게 없었으니까, 서로가 사이도 더 좋았고 … 근데 여기 오니까 ….", "(연구자)뭐가 걸리는데요?" 부모도 그렇고, 전(前) 신랑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걸리고, 같이 살 땐 좋았지만, 남편도 우리 애기들 한테 하는 게, 자기 딴에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런 게 또 말 못 하잖아. 또 나도, 나이 먹어서 애기 낳고, 뭐 팔자 좋으려고, 결혼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사실 우울증 걸리더라고.. 여기 와서 애기들은 백일도 안되고, 시어머니 밥 해줘야 되고, 돈도 없는 집에 시집 와갖고, 그러니까 더 힘이 들더라고 스트레스 받더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나 속에서 (돈이) 다 나가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친구들은 애기들이 다 컸으니까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난 애기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장사도 못하고, 남의 집에 뭐 놀러도 못가고, 그런 게 스트레스로 걸렸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좋겠지. 거기 가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자는 솔직히, 웬만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 숨어살고 싶지 않잖아. 그것만 아니라면 살고 싶지만, 또 불법체류로 살아라면 못 살지, 어디 가든 찔끔찔끔하고. 이제는 좀 편해져서 괜찮지만 …. 힘들 때는, 나혼자 라도 몇 년 가서 고생하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H씨)

H씨 또한 귀국 후의 "걸리는 게 많은" 삶에 대한 해방처로 일본으로의 재이주의 의지를 비췄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

가끔 가다가, 지금도 어디 지나가다가 일본 생각이 나. 어쨌든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은 계속 많이 생겼어. 갈 수만 있다면. 근데 일부러 밀항해서 갈 생각은 없고. 거기 8년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 생활이 적응이 되어 버리니까. 근데 살면은 또 살아지더라.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또 뭐 생각은 나지만, 거기서 생활이 반복적인 생활이니까, 나를 위해서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공연 같은 거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인 삶이니까, 나한테 추억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없고, 단지 한국에 오니까 내가 돈벌어서 빚 갚은 거 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없죠. (I씨)

I씨도 “불법체류”라는 제약된 생활 여건 속에서 빚을 갚기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행위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단지 … 빚 갚은 거 밖에 없구나”라고 인식하였다. 인생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단지 … 빚 갚은 거”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시기 제주여성의 노동이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이 본국의 “걸리는 게 많은” 삶에 대한 해방이 될 수도 있으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별 의미로 남지 않는 제약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일본에서 미등록 체류 상태로 노동했던 제주여성 9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분석하여,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여성들의 이주경험을 검토하고자 했다. ‘이주 아비투스’란 제주도민들이 일본이라는 장소를 경제적 필요를 넘어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일본으로의 이주를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집합기억과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성향이며, 구조적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

1989년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제주여성들은 더욱 용이하게 일본으로 이주할 수 있었으며, 미등록 체류라는 제약 속에서도 식당, 호텔 청소, 파친코 환전소 등 여성 중심의 서비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여 생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노동시장이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구조적 조건과도 맞물려 있다. 그들은 일본 내 친척과 친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고,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성의 이주는 단순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여성들은 합법적 입국이 어려울 경우 밀항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반복적 이주를 통해 노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했다. 제주여성들은 자신의 직장을 남편이나 가족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비교적 높은 노동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과 동시에, 그들이 가족 내에서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의 육지 출신 미등록 이주자에 비해 가족/자녀 동반 이주가 많았던 제주여성들의 이주는 미등록 상태에서도 자녀양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경험치를 근거로 주변으로부터 정보 및 지지를 받아 자녀와 함께 미등록 체류를 경험했다. 제주여성들은 동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을 지속했다. 일본에서도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본 내 교육 및 보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돌봄 네트워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 결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일본으로 이주노동을 택한 제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으나, 일본에서의 이주노동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옭아매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삶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들은 일본에서의 삶이 제주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빈부격차로 인한 차별이 적어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했으나, '불법 체류'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 노동 외의 개인적 삶을 누리기 어려웠다. 남성보다 노동 기회가 많아서 제주여성들은 일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는 곧 가족 내에서 더 큰 경제적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생존을 책임지는 적극적 실천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합법적 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항과 반복 이주를 감행하였으며, 이는 공식적(formal)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비공식적(informal) 네트워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 행위성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 미등록 이주자들과 비교할 때, 여성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부르디외의 "사회적 실천 = (자본 × 아비투스) + 장" (1979/ 2005: 144)이라는 공식에 비춰보면,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를 동향 네트워크라는 사회자본과 일본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주 아비투스'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의 서비스업 중심 노동시장이라는 장,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빚과 경제적 압박이라는 장이 더해지면서, 미등록 체류라는 위험하고도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감행하는 실천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더욱이 본 연구는 1930~60년대생 제주여성들이 가지는 특수성, 즉 일본과의 오랜 지역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가족 · 친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경로를 개척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제약을 넘어서는 적극적 이주 주체로서, 젠더화된 국제 이주 구조 속에서도 자신만의 전략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일본에서의 미등록 이주노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을 기회가 제공되었기에 남성보다 비교적 다양하고 안정/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했던 제주여성들의 이주노동은 (남성보다) 빈번하고 장기화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이주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 과정에서 이주체제, 제도, 그리고 개인 행위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이주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입체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은 1930~60년대생 제주여성의 미등록 이주경험이므로, 그보다 더 젊은 층의 제주여성들도 이러한 '이주 아비투스'를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이 시기의 특징적인 이주경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젠더화된 이주는 입국뿐만 아니라 귀국에도 영향을 준다. 해외 이주, 그리고 귀환에 대한 젠더화된 특징에 대한 분석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김민정. 2012.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한국여성학』 28(2): 33-74.

김치완. 2024. “제주 이주 노동의 역사와 정체성 문제.”『도서문화』 63: 193-229.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경제와사회』 70: 10-37.

김희철 · 진관훈. 2007. “재일 제주인의 경제생활과 제주사회기증에 관한 연구.”『법과 정책』 13(1): 101-123.

부르디외, 피에르. 2005.『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원서출판 1979]

양인실. 2013. “일본 TV 영상물의 재일제주인 표상.”『일본비평』 8: 80-117.

이규용. 2016. “노동이민과 경제.” 이혜경 · 이진영 · 설동훈 · 정기선 · 이규용 · 윤인진 · 김현미 · 한건수『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91-319.

이미애. 2021. “이주의 장에서 소수 이민 여성의 ‘불법적 위치’ 재전유하기: 프랑스의 중국 조선족 연구.”『한국사회학』 55(1): 131-178.

이상길. 2001. “문화생산과 지배: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언론과 사회』 9(1): 7-46.

이성회. 2013.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 장 · 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이혜진. 2023.『오버스테이』. 서울: (주)북랩.

_____. 2014. “이주과정을 통해 본 에스닉 네트워크와 노동경험: 일본 요코하마 고토부키쵸의 한국인 미등록노동자를 중심으로.”『탐라문화』 47: 213-252.

_____. 2013.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과 한국인 노동자 : 1990년대 전반의 가나가와 시티유니온과 고토부키쵸의 한국인 미등록 노동자의 접속.”『경제와사회』 100: 292-334.

정기선. 2016. “인구와 이민.” 이혜경 · 이진영 · 설동훈 · 정기선 · 이규용 · 윤인진 · 김현미 · 한건수『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257-290.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조성윤. 2005. “제주도에 유입된 일본종교와 재일교포의 역할.”『탐라문화』 27: 83-96.

(2) 국외문헌

玄武岩. 2007. “密航・大村收容所・濟州島—大阪と濟州島を結ぶ『密航』のネットワーク.”『現代思想』35(7): 158-173.

梶村秀樹. 1985. “定住外國人としての在日朝鮮人.”『思想』734: 23-37.

枡田一二. 1976.『枡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櫻井厚. 2012.『現代社會學ライブラリー7. ライフストーリー論』. 東京: 弘文堂.

_____. 2003.『ライフストーリーとジェンダー』. 東京: せりか書房.

_____. 2002.『インタビューの社會學——ライフストーリーの聞き方』. 東京: せりか書房.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0. *The asset economy.* Cambrigde, UK : John Wiley & Sons.

Kofman, Eleonore; Phizacklea, Annie; Raghuram, Parvati; Sales, Rosemary. 2000. *Gender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Europe: Employment, Welfare and Politics,* Routledge.

Massey, D. S. 1987. *Understanding mexican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372-1403.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1-466.

Mattingly, D. J. 2001. *The home and the world: domestic service and international networks of caring labor.*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1(2), 370-386.

Oishi, Nana. 2005. *Women in Motion.*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Abstract

Gendered Migration of Korean Women – An Analysis of Oral Narratives of Jeju Women's Experiences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Japan in the 2000s

Lee, Heyjin
(Gyeongnam Institute)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Jeju women who lived as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Japan in the 2000s by utilizing the concept of 'migration habitus'. 'Migration habitus' refers to the tendency to accept migration and movement as a natural and routine part of life in a certain region. Jeju women's migration to Japan was a choice to resolve economic crises such as husbands' business failures and guarantees of debts. The migration of Jeju people to Japan, which continued from the early 20th century, became more active due to factors such as the network of Jeju residents in Japan and the expansion of tourist visas. In cases where legal routes were difficult, smuggling or staying on tourist visas took place. In the Japanese labor market, women were able to find more stable jobs than men, and they mainly worked in the service industry, such as restaurants, hotel cleaning, and pachinko exchange shops. Jeju women were able to find employment and settle down through their relatives, friends, and hometown networks in Japan. Their return to Korea was either voluntary (self-imposed) or forced repatriation, and they often found it difficult to readjust to Korean society after their return, and they sometimes showed a desire to move to Japan again. This study emphasizes that Jeju women's labor migration was gendered and determined by the needs of the family economy.

Key words: Jeju women, Migration habitus, Jeju network, Economic crisis, Gendered labor migration, Life story

투 고 일 : 2025년 3월 16일
최초심사일 : 2025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 2025년 4월 25일